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사무엘 예언자

마태오 제 10주일

성 디오미디스 순교자, 성 아포스톨로스 큰
대순교자

제 1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 사도경 : I고린토 4:9~16 / 봉독서 202
- 복음경 : 마태오 17:14~23 / 114, B 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사무엘 예언자

우리 교회에서 8월 20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사무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탄생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양육되었고, 연로할 때까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로 인해 탄생하였고, 이스라엘의 첫 두 왕들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예언자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의 사제 곁에서 봉사하였던 많은

사제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무엘 예언자도 어린 시절 하느님의 사제를 위해 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직 아이였을 때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제로부터 인도되어 답변하는 모습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여, 당신의 종은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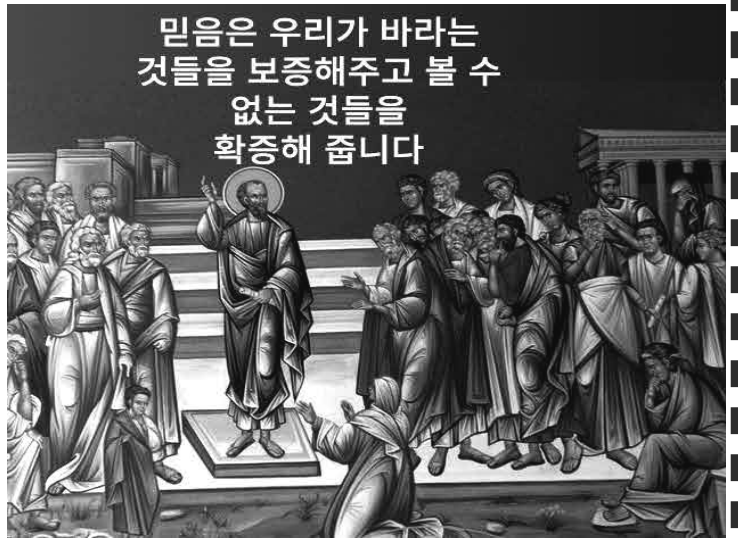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 뜻은 믿음을 물질세계의 감각만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영적 눈이 필요한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은 이성과는 분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이성이 올바르게 작용할 때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성은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데살로니카 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두 다 바른 이성으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은총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어 하느님을 올바로 믿는 길로 인도된다.

하느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영적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을 이끌어 주시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지만 그런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에는 마치 가시나무 숲을 헤쳐 나아가듯이 영적, 육적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변치 않는 굳건한 몸과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지켜 주신다. 이런 굳건한 마음의 자세는 믿음의 길로 인도되는 처음은 물론 믿음 생활 끝까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

설령 은총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믿음이 변덕스럽게 변하게 된다. 선택 이전에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 선택 이후에는 믿음의 자세를 굳건히 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하느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며 감사히 실천하면서 그의 보호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충고 성 대 바실리오스(4세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행하는 것에 동화되며, 그런 행위의 형태와 모양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외모와 입는 옷, 자리에 앉는 방식뿐 아니라 먹는 음식, 사는 집과 가구 등이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과 친구관계는 절제가 있어야 하고, 과장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과시하거나 으스스대지 마십시오. 오만하고 근엄한 태도로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며, 모든 것을 부풀려 표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벗에게는 친절하고, 부하직원엔 부드럽게 대하고, 무례한 이를 용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이를 찾아가 위로하고, 상냥하게 이야기하며, 웃음을 잃지 말고 응대해 주며,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이 당신을 높이도록 하지 말며, 거만한 말에 동의하지 말고, 당신의 덕이나 업적을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거나 화난 말투로 재빠르게 지적하지도 말고, 마치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잘못을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영광을 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짜 중요하게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당신의 열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은 놀라운 보상을 안겨주십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사람과 동등하게 되십시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돌보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러듯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명하신대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열렬히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인 듯이 당신을 천사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오 11:29)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온라인 성찬예배와 성서공부를 시청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성당에서 예배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대교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성찬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서공부도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부는 기존 주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를 기본으로(특별한 사정에 따라 실시간 시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튜브 한국정교회 계정에 올라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복 75주년 기념 교회협 회원 교단장, 기관장 기자간담회

지난 8월 10일(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 주관으로 이루어진 “광복 75주년 기념 교회협 회원 교단장, 기관장 기자간담회”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75주년 광복절 선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월 8일(토)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의 축복으로 디미트리 장영재와 마리아 이다래의 아들 장태하 아기가 성부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및 견진 성사를 받고 필립보 사도 이름으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게 세례를 받게 되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을 비롯한 교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여름 주일학교 프로그램

공지해 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는 오는 8월 21~23일까지 성당에서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밋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여름 주일학교 프로그램

공지해 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는 오는 8월 28~30일까지 성당에서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밋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